

일본유학체험담

생명환경학부 환경과학과

조용도

① 왜 일본유학을 선택했나.

제가일본유학을 결심한대에는 정말 많은 이유가 있습니다. 제가 처음부터 일본에대해 관심을 갖게된 것은 아니었습니다.

20년(2000년~2019년)을 한국에서 살아온 저는 중학교를 다니던 때에 진로에대해 처음으로 관심을 가지게 되었습니다. 그 시절 저희세대의 부모님들은 자식이 공무원과 같은 안정된 직장을 가지길 바라셨습니다. 저는 중학교 1학년 때에 소설작가로써의 꿈을 가지게 되었고, 대회에 입상을 하게되며 자신감을 가지게되었지만, 성공하기 힘들다는 현실을 알게되며 중학교 3학년때는 꿈을 포기하게되었습니다.

그리고,중학교 3학년 부터는 육군 장교가 되고싶었지만, 육군 장교역시 출신 학교에따라 진급이 힘들다는 사실을 알기 되었고, 가장 진급하기 쉬운 사관학교라는 상급학교의 진학을 목표로 하게되었습니다. 하지만 이 사관학교는 한국내에서 거의 탑 레벨의 성적을 가지지 않으면 입학이 불가하기 때문에 육군장교역시 포기하게되었습니다. 절망했던 저는, 우연히 다니고 있던 고등학교에서 오사카,교토 문화 관광에 참여를 하게되었으며, 자신있게 일본어로 소통을 하게된 결과 동급생으로부터 일본어 잘한다는 칭찬을 받게되었습니다. 그 당시 고등학교는 공부를 잘하는 학생이 많았기에 학업면에서 칭찬을 받을 기회가 비교적 적었기에 정말로 기뻐으며 이를 계기로 일본 유학에대해 자료를 조사하며 꿈을 확고하게 되었습니다. 그로부터 비로소 일본유학의 꿈을 가지게 되었습니다.

취업면이아니더라도, 많은 일본여행을 토대로 일본이라는 아름다운 나라를 많은사람들에게 알리며, 일본에 도움이되는 인재가 되고싶었기에 수많은 나라중에 일본 유학을 결심하게 된 것 같습니다.

② 왜 현립 히로시마 대학에 진학하는 것을 선택했나.

제가 현립 히로시마 대학의 진학을 선택하게된이유는 지리적인면과 전공의 두가지면에서입니다.

먼저 지리적인 면에서는 일본유학을 선택하게된 이유에서 기술하였듯이 일본에 도움이되는 인재가 되고싶었기에 일본을 알아가기위해 유리한 지역이라고 생각한 히로시마현을 찾았습니다.

그래서 일본국내의 시골부터 도시를 여행하며 여행지의 시민이 어떠한 삶을 살아가고있는지 파악하기에 지리적인 부분에서 서일본(西日本)의 규슈, 시코쿠, 간사이의 가운데에 위치한 슈코쿠 지방의 히로시마 현의 현립 히로시마 대학의 진학을 결정하게되었습니다.

전공의 면에서는 원자력 발전소로부터 발생하는 방사성 폐기물중 플루토늄처럼 반감기가 매우 긴 고레벨 방사성 폐기물을 연구하는 것이 꿈이었습니다. 그래서 방사선과 관련된 연구를 하고있는 현립히로시마 대학교에 진학을 결정하게 되었습니다.

③ 수험 공부에 관한 조언.

일본의 국,공립대 이상을 지망하신다면 EJU(일본유학시험)는 필수입니다. 그 왜에도 소논문,면접 영어 자격증을 요하는곳이 있습니다. 학교를 다니시면서 일본 입시공부를 하는 것은 괴로울것입니다. 그렇기에 진지하게 유학을 생각하신다면 전문 학원을 다니는것도 방법이라고 생각합니다. 특히 이과생일 경우는 한국 커리큘럼에서 벗어난 내용이 출제되기에 혼자하기는 힘들거라고 생각합니다. 일본어도 외국어이기에 익숙해지기위해 계속 읽으며 독해실력을 늘리되, EJU의 출제경향에 맞춰서 능력을 키우는 것을 추천합니다(단시간에 문제를푸는능력). 청해와청독해는 공부하면 충분히 따라가실거라고 생각합니다. 저는 물리,화학 선택자로서 과거문제를 위주로 풀어보는 것을 추천합니다. 이 왜의 영어도 수능 영어를 충분히 하신다면 문제는 없을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면접의 경우도 목소리를 내어서 또박또박 열심히 대답하면 문제없으며, 소논문 역시 뭐라도 쓰려고 노력하면 점수를 받을수 있을것입니다. 학교 공부와는 거리감이 있으니 항상 멘탈 케어를하시며, 충분히 시간을 두어 천천히 계획을 잘 짜셔서 준비하시면 누구든지 이뤄낼것이라고 믿습니다.

④ 히로시마의 인상에 대해.


저는 히로시마현이 원폭 돔, 평화공원등 유명한 관광지와 친절할 사람이 많은 곳으로 생각합니다. 히로시마에 오기전에는

역사적으로 깊은 그저그런 도시의 느낌이었지만, 2년을 살아본 후에는 일본 국내에서도 정말 살기 좋은 도시 라는 느낌을 받았습니다. 저는 아무래도 유학생활동 공부만 하면서 생활하기엔 따분하다고 느낄 때 힐링을 받기위해 여행을 떠났습니다. 히로시마의 경우는 이러한 힐링을 위한 장소가 잔뜩 있습니다. 섬이 정말많기때문에 귤,레몬을 재배하는 곳에서 체험을 할수도 있으며, 미야지마라고하는 섬에가면 히로시마의 특산물인 귤과 모미지만주를 드실수도있습니다. 그리고 오오쿠노시마(토끼섬)에가면 섬전체가 토끼로 둘러쌓여있기에 힐링 받을수있을 것입니다.

그리고,히로시마현은 도쿄,오사카처럼 너무 복잡하지도 않으며, 적당히 일본풍을 내고있는 현입니다. 또한 JR 이 지나가고있기에(신칸센이 지나가는 지역) 너무 시골도 아니어서 현외에 놀러가기도 적당합니다. 히로시마현의 지역적 특성으로부터 시코쿠,규슈,간사이의 중심에 위치하기에 여행가기 쉽습니다. 일본이라는 나라는 가로로도 세로로도 한국과 비교하면 정말 긴 나라입니다. 그렇기에 남쪽지방 의 미야자키현에가면 일년내내 눈이 거의 오지않으며 북해도에가면 남쪽과비교했을때 정말 춥다고 느낄 수 있습니다. 이중에 히로시마는 한국의 남쪽과 같은 계절의 뚜렷함을 볼 수 있습니다.

⑤ 현재의 학교 생활에 대해.

현재는 신형 코로나바이러스로 인해 제가 다니고 있는 쇼바라 캠퍼스에서는 모든 수업이 비대면이되었습니다. 하지만, 이과로써 실험수업과 3학년부터 연구실에 배속받아 연구를 하기위해는 대면 수업을 위한 방향으로 이루어지고있습니다. 연구실의 특성에 따라 졸업논문의 테마는 다양할것으로 예상하고있지만, 저는 대기 오염에관련된 PM2.5의 측정에 대한 연구도 고려하고 있는바, 학교에 등교하지 않고도 자택근처에서 측정이 가능하기에 조금씩 혼자서 진행을 하고있습니다. 그 왜에는 드럭스토어에서 아르바이트를 하고있습니다. 학교를 가지않는 날은 아르바이트 일을 통해 사회의 분들과 접촉하여 사회인으로써의 매너를 공부하고있습니다. 아르바이트와 학교를 제외하면 이곳에서 사귀 친구들과 장보러 가며 요리와 진로,취미에관련된 이야기를 합니다.



⑥ 일본유학을 생각하고 있는 사람들에게 하고 싶은 말.

해외에서 생활하는 것은 절대로 쉬운 일이 아닙니다. 해외에서도 자신이 노력한만큼 보답을 받기에 열심히 생활을 하며 참여하는 정신이 있다면 언어적으로도 문화적으로도 잘이겨낼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이런 말이있습니다, “모국에서 사교성이 좋은사람은 어느 나라에가도 친구를 사귄 수 있다.” 즉, 교우관계는 외국어 능력과는 무관하게 그사람의 인간성 등이 관여된다는 말입니다. 정말 자기하는만큼 돌아오는것이기에 매사에 성실히 열심히 살아가면 된다고 생각합니다. 외국인의 신분으로써 불편한점도 있을것이며, 가끔씩 포기하고 싶은 마음이 들수 있지만 그때마다, 도움을 줄수있는사람이 있다는 점을 인지하고 편하게 상담을 요청하면 됩니다. 고생한 만큼 평생 잊을 수 없는 추억을 가질 수 있는 좋은기회라고 생각하기에 수험생 일때에는 공부만 열심히 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언젠가 일본에서 웃으면서 뵈고싶습니다.

